교직원들 음주운전 "NO"

전북도교육청, 음주운전 예방 · 홍보 디자인 공모전… 내달 3일까지 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교직원들의 음주운전 예방 근절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연초 마련한 교직원 음주운전 예방 종합대책에 따라 '음주운전 예방·홍보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분야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디자인(문구 포함)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비롯해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접수는 온라인과 방문·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도교육청 전북교육소식 홈페이지(http://news.jbe.go.kr) 공모전 게시판에 접속해 작품제목, 작품소개, 출품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작품을 첨부하면 된다.

우편·방문접수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실(8층)로 하면된다.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작품(파일)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공모 마감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도교육청은 1차 온라인 투표와 2차 현장투표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합산해 오는 7월 8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송용섭 감사관은 "우리교육청은 '음주운전 제로화 종합 대책'을 도내 모든 교육행정기관에 안내한 바 있고, 그 일환으로 이번 공모전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선정된 작품은 차량용 스티커 등 홍보물로 제작해 도내 기관 및 학교에 배포·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제한식조리학교는 도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제과·제빵 단기과정을 개설했다.

"도내 유학생들에 삶의 활력 선물"

국제한식조리학교, 제과 · 제빵 단기과정 개설

국제한식조리학교는 도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제과·제빵 단기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5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케이크, 식빵, 단과자빵, 타르트 등 21가지 제과·제빵 수업을 10회 운영한다. 낯선 재료명, 기계 명칭, 공정과정 등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수강생에게 30%의 장학금도 지급한다.

민계홍 국제한식조리학교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삶에 지친 도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국제한식조리학교는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지키며 철저한 방역으로 수업의 안전을 지켜가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한식조리학교 홈페이지(http://www.ccikchef.com)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국제한식조리학교는 2012년에 국제적 감각의 한식 셰프를 양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대학교에서 출자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 정부 주도 한식전문 조리학교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맞손'

기술정보 교류 · 현장실습 · 견학 · 취업연계 등 산학협력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학부장 김경희 교수)는 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고성희)와 연구개발 활동 및 기술정보의 교류, 현장실습 및 견학, 취업연계 등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희 학부장, 조현미 교수, 오미숙 교수, 고성희 센터장, 조영하 팀장 등이 참석했다.

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02년 12월 알코올상담센터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 개소한 후, 2020년 사단법인 하은(현, 고성희 대표)에서 수탁운영한다.

또한 전주시 거주 대상자의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등 중독질환자 및 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재활프로그램으로 회복을 통한 사회복귀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중독예방교육 및 상담을 통해 중독문제의 조기발견 및 중독위험감소 등 안전한 사회 환경조성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경희 학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지속적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사회에 만연한 중독 질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솔루션 개발에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학부장 김경희 교수·왼쪽에서 3번째)는 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고성희·왼쪽에서 4번째)와 연구개발 활동 및 기술정보의 교류, 현장실습 및 견학, 취업연계 등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호원대 'Teaching Helper' 5명에 임명장 수여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교수학습개발센터는 25일 총장실에서 '2020학년도 Teaching Helper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서 임명된 Teaching Helper는 이영숙(IT소프트웨어보안학과), 정지연(응급구조학과), 문옥곤(물리치료학과), 윤진주(아동복지학과), 차준열(스포츠경호학과) 교수로 총 5명이다.

Teaching Helper는 호원대 교육현장에서 발굴한 2기 티칭리더로서, 교수(teaching)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활동하게 된다. 특히 2020학년도 Teaching Helper는 자신의 성공적인 온라인 교수전략을 공유하는 교수코칭 활동을 하게 된다.

강희성 총장은 "자발적인 교수공동체를 중심으로 호원대가 추구하는 4차 산업시대 맞춤형 교육 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은정 교수학습개발센터장(유아교육과 교수)은 "우리대학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교수·학습 상황에 적절히 대처해 온 Teaching Helper들의 교육노하우는 동료교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상황에 대응해 신임교원 교수법 연수 등을 전면 온라인으로 변경·운영하고 있으며, 교수법 특강 역시 비대면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춰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호원드림업 서포터즈 1기 선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취업지원실이 호원드림업 서포터즈 1기를 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교내 게시판 홍보를 통해 호원드림업 서포터즈 1기를 모집, 40여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비대면 면접을 실시했다.

비대면 면접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1:1 화상면접으로 진행, 면접결과 협동성, 기획/마케팅 능력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국방기술기술학부(3학년) 김○재, 응급구조학과(3학년) 이○인, 응급구조학과(4학년) 김○열, 유아교육과(3학년) 구○화 등 4명이 호원드림업 서포터즈 1기로 최종 선발됐다.

호원드림업 서포터즈 1기는 학생 홍보단원으로서 취업지원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참여 안내 및 수요조사 실시, SNS 이벤트 진행, 채용정보 공유, 역량개발활동 우수 사례 발굴 등의 홍보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응급구조학과 4학년 학생은 "호원드림업 서포터즈로서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확한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탄소융합공학과, 中企 재직자 편입생 모집

내달 8일~30일… 총 8명

전주대학교 탄소융합공학과는 등록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3학년 편입생(가을학기)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을학기 모집은 6월 8일부터 30일까지며, 총 8명이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이 과정을 통해 일하면서 탄소융합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전라북도 핵심 산업인 탄소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수업은 매주 평일 야간 화, 수 목, 3일간 진행되며, 직장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수강 가능하다. 탄소물리 및 탄소화학, 탄소소재, 탄소고분자공학과 기술경영 등의 교과목을 배우게 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탄소공학 학사·석사·박사 모든 과정을 갖추고 있어 이후 연계 학습도 가능하다.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중소기업 재직자 중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재교육형)이거나 학과 원서 개시일로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동시채용형)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합격 후에는 3학년으로 편입하여 2년 과정을 수료하면 공학사를 취득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 탄소융합공학과 행정실(공학1관 205호/063-220-3093)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